

열린세상

광주군공항 이전 광주전남의 절박한 과제다



이두현 본사 주필

광주·전남이 함께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을 꼽으라면 단연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이다. 광주입장에선 군 공항 이전이 불가피하고, 전남 입장에선 광주전남간공항 무안통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냥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서 시·도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광주군공항이전 문제다.

속도내는 대구, 공공 묶인 광주

그러나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후보 물망에 오른 전남 시군 지자체 모두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국방부 주관 '군공항이전 설명회'는 물론, 설명책자 배부까지도 거부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구시는 6월 한달동안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해 지원범위, 지원계획수립 등 세부절차를 8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9월엔 통합대구공항 이전부지선정계획을 수립한 뒤 최종 후보지 선정절차와 기준 등을 공개한다.

사실 군사공항 이전으로 얻어지는 것도 많다. 피해 못지않게 지역발전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선 4,500억원의 적지 않은 국고가 지원된다.

군공항 이전 지역발전 호기 될수도

지역정치권과 광주 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회는 지난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국가사무원만큼 국방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기고



서정미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미생물과장

오늘 저녁은 뭘 먹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많은 요즘, 음식을 준비할 때도 시간과 노력의 '가성비'를 따지게 된다.

안전한 음식, 편하게 즐기자

드,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간편 과일 등, 그리고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외에도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이 세트

먹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메뉴였던 삼겹살까지도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 간편식의 시장 규모

연구원에서는 제조·가공·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시행하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급식소 등 많은 사람이 이

특지광장

영·유아는 연령별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고 하루라도 늦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달력에 표시도 하며 그날만큼은

성인 예방접종 중요성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인 신체구조상 연령별 적절한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몇 가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인 예방접종을 인용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체력 저하 및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낮아지면 대상포진에 걸리기 쉬운데 대상포진

복용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집중해야 한다. 만성질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65세 이상의 성인에게 집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fire, etc.

Table with 2 columns: 대표전화 and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newspaper.

사설: 광주지역 산업구조 개선 급하다. 광주지역 산업구조가 일부 대기업 위주로 편중돼 있어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파 소비 동참으로 양파농가 돕자. 전남지역 양파 재배농가들이 과잉 생산과 소비부진,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구역 지켜야. 감염되면 '치사율 10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 발생하면서 국내 양돈 농가는 '초비상' 상태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